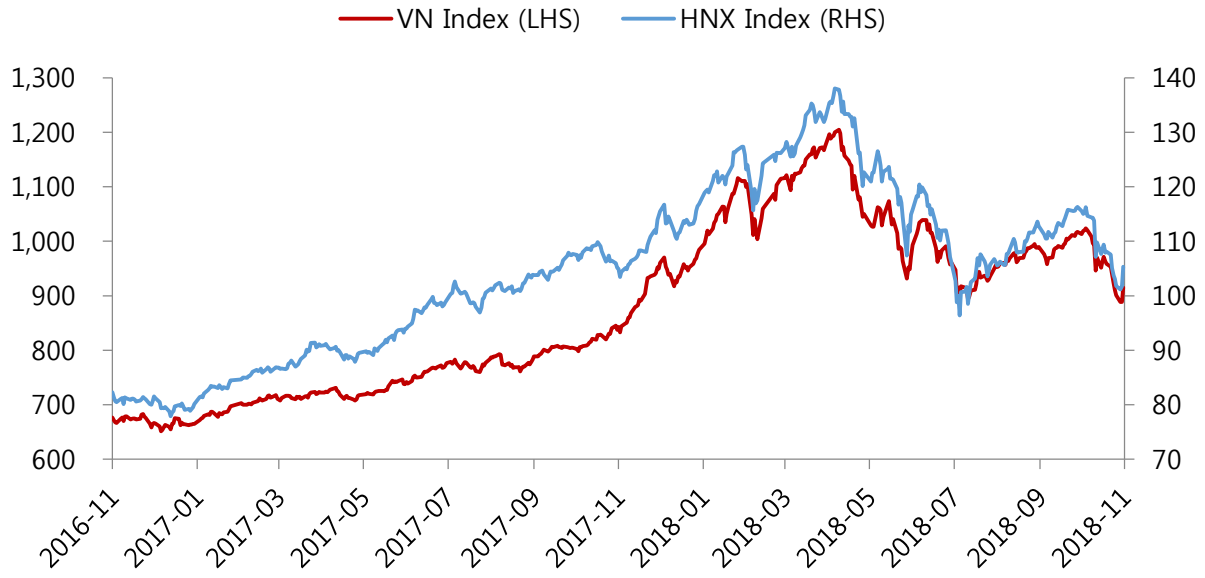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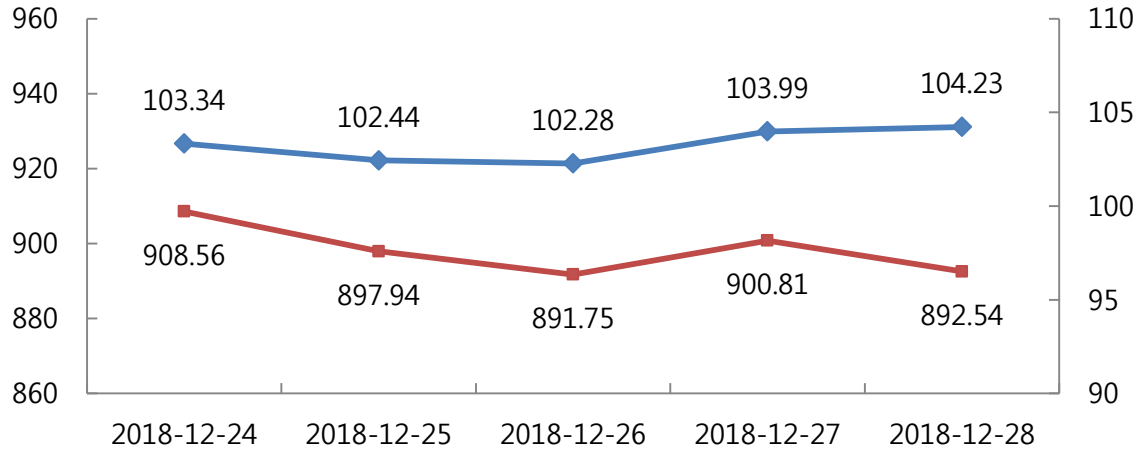
1. 주식시장 뉴스

■ 연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간 주식시장 지수 (일별 종가 기준)



■ 주중 주식시장 개관

2018 년 마지막 장이었던 28 일, VN 지수는 지난 주보다 19.72 포인트(2.2%) 하락한 892.54 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다. 작년 거래말일(984.24 포인트)에 비해 10.2% 감소한 수치다. 빈그룹과 비나밀크 등 대형주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 HNX 지수는 지난 주에 비해 0.22(0.2%) 포인트 하락한 104.23 포인트에 마지막 장을 마감했다. 작년 말(116.86 포인트)에 비해서는 12.1% 떨어졌다.

■ 개별 기업 뉴스

○ 미국 렌터카 업체 Enterprise Rent-A-Car, 베트남 시장 진출

미국 렌터카 업체 Enterprise Rent-A-Car(Rent-A-Car)가 베트남 시장 진출을 발표했다. Rent-A-Car 대표는 베트남이 Rent-A-Car의 아시아 진출 첫번째 국가이며, 베트남 시장 규모가 큼에도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베트남의 렌터카 시장은 외국인 투자의 급증과 함께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적어도 10년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베트남에 진입함에 따라 렌터카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Rent-A-Car 대표는 베트남에서 중산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부모 세대들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젊은 세대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는 것이나 넓은 집에서 사는 것에 큰 의의를 두기보다는 삶의 질과 경험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데, 이들이 잠재적인 렌터카 시장의 고객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주요 경제 동향

■ 베트남 2018 년 GDP 성장률 11 년 만에 가장 높아

베트남 GDP가 2018년 7.08% 성장했으며, 이는 지난 11년 간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통계청이 27일 밝혔다. 통계청장 Nguyen Bich Lam은 기자회견에서 성장률이 목표치였던 6.7%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Lam에 따르면, 농축수산업 영역은 3.76% 성장했고 전체 성장에 8.7% 기여했다. 산업-건설업 영역은 8.85% 성장했고 전체 GDP 성장에 48.6%를 차지했다. 서비스 영역은 7.03% 성장했으며 42.7% 기여했다.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14.27% 늘었으며 수입은 12.81% 올

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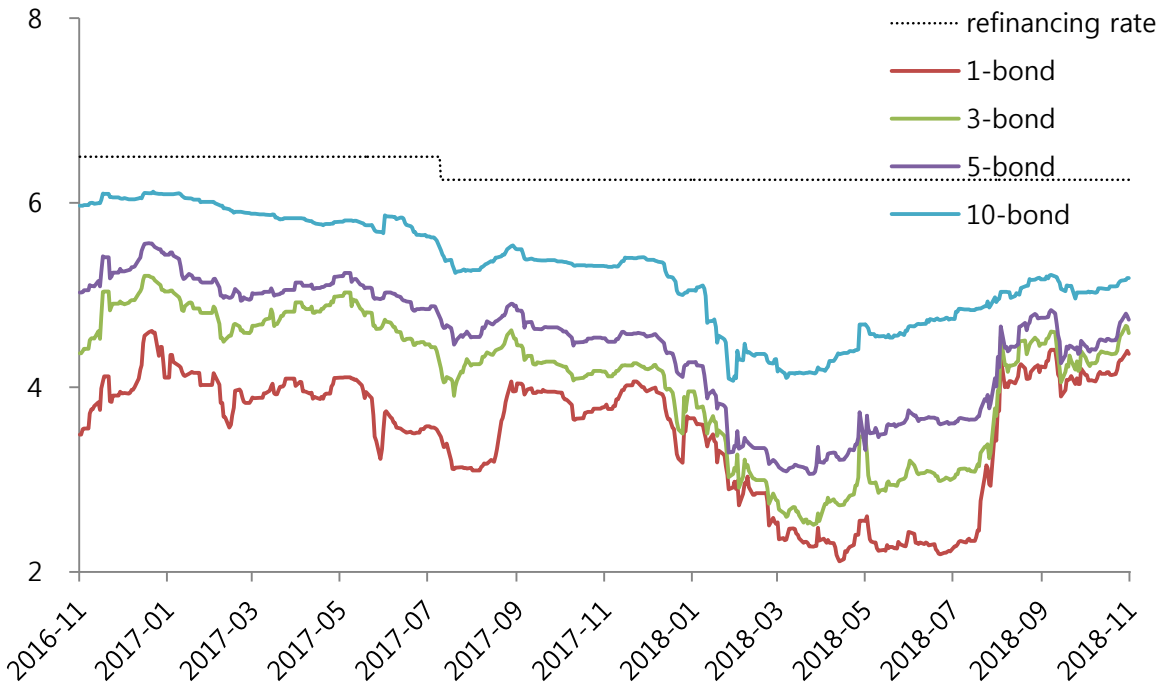
■ 베트남 맥주업계, Tet(구정) 명절 특수 대비중

2019년 구정(Tet)까지 약 두 달이 남은 가운데, 슈퍼마켓과 소매업자들은 양조업계의 판매 촉진 대비를 위해 준비에 힘쓰고 있다.

MM Mega Market 대변인은 Vietnam Newspreparations에 명절 대비 구매가 완료됐으며, 올해 판매 규모가 5% 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대변인은 말했다. 롯데의 대변인은 내년 2월까지 250,000 케이스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업 플랫폼들은 11월이 시작된 이후 맥주 브랜드 검색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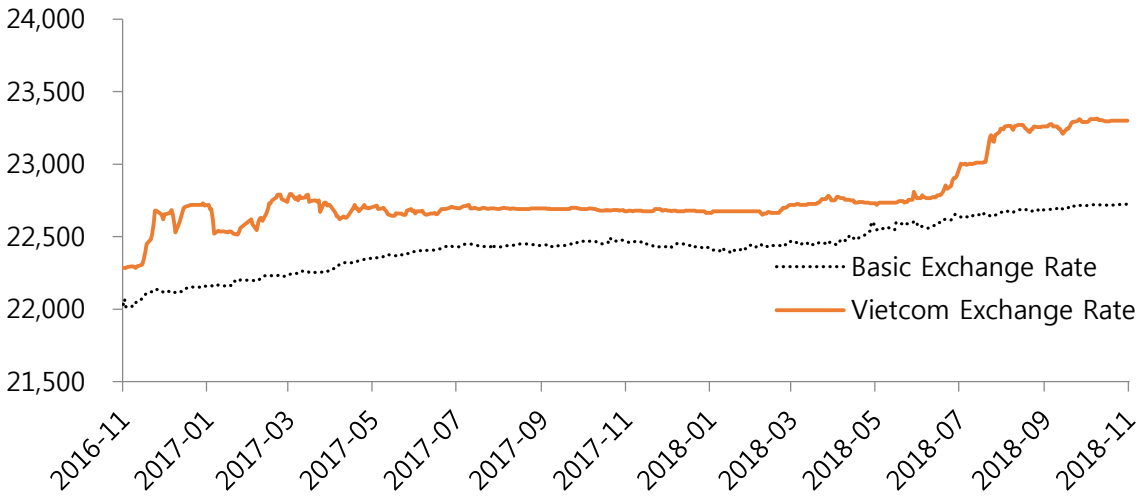
3. 금융 시장 동향

■ 기준 금리 및 국채 금리(SBV, Vietnam Government Bond Rate, %)



■ 환율(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2018-12-28	Buying	Transfer	Selling
VCB Exchange Rate	23,145	23,155	23,245



■ 67 개 핀테크 기업, 베트남 44 억 달러 시장을 놓고 경쟁 중

아시아 지역 컨설팅 업체 Solidiance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현재 67개의 핀테크 회사가 44억 달러의 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시장 규모는 7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핀테크 기업의 수는 2017년 기준 싱가포르 490개, 인도네시아 262개, 말레이시아 196개 보다 상대적으로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베트남 핀테크 회사의 3분의 2가 온라인 결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중앙은행은 27개의 결제 중개 서비스 제공자를 인가했으며 그 중 다수는 전자 지갑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은행은 베트남 핀테크 기업의 빠른 성장은 국가 인구의 절반 이하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스마트폰 사용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플랫폼 공급업체 Appota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현재 5천만 명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있으며 인구의 5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2017년 베트남 전자 상거래 시장이 구글의 예측을 넘어서 40-50%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다.

4. 부동산 시장 동향

■ 박닌성 도심 지역 개발에 1 억 5,400 만 달러 투자

박닌성 북부 Luong Tai 지역에 360 헥타르 규모의 도심 지역이 개발된다. 3 조 6 천만 동(1 억 5,400 만 달러) 이상의 자본이 투자된다. Thua town 프로젝트는 최근 지역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행정 단지와 도심 지역으로 구분될 계획이다.

투자는 국가 예산과 민간의 합작 투자로 이뤄진다. 1 조 동 가까이가 주거 단지와 도심 지역에 투입되며, 교통 시스템에 1 조 2 천억 동, 행정 단지에 2 조 70 억 동, 헬스케어 영역에 1,600 억 동, 교육에 1,450 억 동 정도가 투입될 계획이다.

■ 산업용 부동산 시장 2019 년 성장 기대

최근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가 계속되고 있음에 힘입어 내년 산업용 부동산 개발 역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업계 종사자들이 말하고 있다.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산업용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술적 요구사항과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정 작업장의 수요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물류업 시장 또한 향후 베트남 산업용 부동산 시장의 중요 발전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류업 시장이 향후 5-10 년 간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5. 한국 기업 동향

■ 베트남 시총 2 위 마산그룹에 국민연금, SK 와 공동 지분투자

국민연금이 SK 그룹과 함께 베트남 식품·유통기업 마산그룹 지분을 인수한다. 23 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투자위원회를 열고 SK 그룹이 마산그룹 지분 9.5%를 인수하는 거래에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총 인수금액 4 억 7000 만달러(약 5300 억원) 중 국민연금이 1600 억원을 지원한다. 스틱인베스트먼트가 국민연금 투자금을 위탁 운용한다. IMM 인베스트먼트도 최근 결성한 펀드를 통해 1000 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SK 그룹은 앞서 지난 9 월 5 개 주요 계열사가 출자해 싱가포르에 설립한 투자 전문회사를 통해 마산그룹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마산그룹은 베트남 증시에 상장된

민간기업 중 시가총액 2~3 위인 대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이 약 2 조원에 육박한다. 각종 소스와 라면 등을 유통하는 식음료 사업과 축산, 광물 사업 등을 하고 있다. 국내로 치면 CJ 그룹과 비슷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췄다. 베트남 최대 민영은행도 보유하고 있다.

SK 그룹은 마산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베트남 내에서 전략적 인수합병(M&A)과 신사업을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산그룹이 콜드체인(저온유통) 물류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베트남은 기온이 높은데도 콜드체인이 갖춰져 있지 않아 농수산물, 축산물 등 신선식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통 반경이 좁고 재고 낭비가 심해 수익률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대식 신선식품 물류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식음료, 축산 등이 주력인 마산그룹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More information: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22354661)

■ CJ 헬스케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베트남 진출"

CJ 헬스케어가 베트남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CJ 헬스케어는 베트남 1 위 제약사인 비메디멕스와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정'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6 일 밝혔다. CJ 헬스케어는 2015 년 중국 제약사인 뤄신사에 케이캡 기술을 이전하며 1 조 6000 억원 규모의 중국 항궤양제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이번 계약으로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위식도역류질환 시장에도 진출하게 됐다

이번 계약으로 CJ 헬스케어는 계약금과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를 받고 비메디멕스에 베트남 시장에 대한 케이캡정 독점 판매권을 제공한다. 베트남 시장에서의 케이캡정 출시 시기는 2021 년으로 예상되며, CJ 헬스케어는 출시 후 10 년에 걸쳐 비메디멕스에 완제품을 공급한다.

비메디멕스는 지난해 원화 기준 약 8100 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베트남 제약유통 전문 1 위 업체다. 베트남에서 PPI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점유율 1 위(기준 IQVIA)를 차지하고 있다. 케이캡정은 지난 7 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신약 30 호로 허가를 받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More information: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8435&thread=22r05)

본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restpine@gmail.com / rest@jplaws.com +84-96-280-6012
권창중 kwoncj5611@naver.com +84-93-277-4982

법무법인 제이피의 뉴스레터는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소의 법률 자문 또는 공식적 견해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jplaw@jplaws.com 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